

#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융합관련성

신미자<sup>1</sup>, 전열어<sup>2\*</sup>  
<sup>1</sup>안산대학교, <sup>2</sup>김천대학교

##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Mi-Ja Shin<sup>1</sup>, Yeol-eo Chun<sup>2\*</sup>  
<sup>1</sup>Nursing Department, Ansan University  
<sup>2</sup>Nursing Department, Gimche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융합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433명이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3.58(±.39)점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평균 3.65(±.50)점,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3.40(±.6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정적 상관관계( $r=.510$ )를,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사이에는 부적 상관관계( $r=-.153$ )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onvergence that resilience has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in order to prepare effective educational materials for clinical practice. The results showed that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ilien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as positive( $r=.510$ ).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silience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was negative( $r=-.153$ ).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to promote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o less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The resul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programs.

**Key Words** : Nursing university student,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Convergence

## 1. 서론

간호교육의 목표는 간호대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로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으며[1],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을 실무능력으로 옮

### 1.1 연구의 필요성

\*This work was supported by GimCheon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 Yeol-eo Chun(20130013@gimcheon.ac.kr)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기는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적이다[2].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간호대학생은 간호현장에서 역할 모델을 관찰하고, 임상 실무를 경험하게 되며[3], 학습한 내용을 간호현장에 적용하도록 하여 간호대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학습 과정으로[4] 간호교육에서 이론교육과 더불어 임상실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환자의 권리 요구가 높아지면서 환자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중재를 거부하여[5]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은 주로 관찰에 의존하고 있다[6]. 임상실습 내용도 단순하고 위험성이 낮은 간호활동 위주로 이루어져 임상실습을 마친 간호대학생이 신규간호사가 되어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실습경험과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7]. 또한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동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고, 부족한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대한 환자의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다[8]. 이상과 같이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대한 자신감 결여, 임상실습이라는 낯선 환경, 과도한 과제물, 역할 갈등, 이론과 실습의 차이로 인한 혼돈, 위기 상황 대처 능력 부족, 환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등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한다[9].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황성자[1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외부적 조정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양남영과 문선영[11], 한선희와 유혜순[12]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 외부적 조정요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이의선과 구미옥[13]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학과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의사소통능력 간에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양윤경, 한금선 등[14]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점수는 평균 3.57점이었으며, 임상실습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경순[15]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점수는 평균 3.14점이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습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수행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자신감 결여를 초래하고 결국 임상실

습 수행능력을 저하시킨다[10].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이란 '회복'과 정신적 저항력을 향상시키고, 역경을 딛고 되튀어 오르는 '탄력성'을 합친 것을 뜻하며, 또한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으로 업무수행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다[16].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이 낮은 간호사는 간호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정서를 견디지 못하지만, 회복탄력성이 높은 간호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력을 쌓아 전문가로서 발전하는 등의 차이를 보였다[17]. 또한 소아암 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18]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는 부정적 상관관계,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0]

이에 임상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서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성공적인 임상실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자신이 경험한 회복탄력성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 과 임상실습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세 가지 개념 간의 융합 관련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임상실습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융합관련성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
- 나.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한다.
- 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

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 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마.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6개월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4학년 간호대학생 450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수 산출근거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alpha).05, 검정력(power).80, 효과크기(effectsize).15로 하였을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수가 166명으로 산출되어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는 K. Reivich, & A. Shatté[21]가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회복 탄력성 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김주환[16]이 번역하고, 한국인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회복 탄력성지수(KQR-53)를 사용 하였다. 도구는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은 총 18개 문항으로 감정조절력(6개 문항)과 충동통제력(6개 문항), 원인분석력(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능력은 총 18개 문항으로 소통능력(6개 문항)과 공감능력(6개 문항), 자아확장력(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하위 요인 중 긍정성은 총 17개 문항으로 자아낙관성(6개 문항)과 생활만족도(5개 문항), 감사하기(6개 문항)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최효정과 석은조[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 박소현과 권윤희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 2.3.2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수행능력 측정 도구는 Schwirian의 The Six Dimension Scale of Nursing을 기반으로 이원희 등[23]이 개발하고 최미숙[24]이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관한 5개 영역 즉 간호과정 11개 문항, 간호기술 11개 문항, 교육/협력관계 8개 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개 문항, 전문직 발전 9개 문항,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잘 못한다'(1점)부터 '매우 잘한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미숙[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 이재경[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7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2.3.3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 도구는 황성자[26]가 개발한 총 58문항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등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있고, 하위 영역 중 상황특성은 의료인의 태도 6개 문항, 환자·보호자 태도 6개 문항, 실습환경 9개 문항, 실습상황 9개 문항, 역할갈등 2개 문항으로 총 32개 문항이며, 개인 특성은 심리적 요인 7개 문항, 지식·기술적 요인 6개 문항, 사회적 요인 4개 문항으로 총 17개 문항이며, 외부적 조정요인은 과제물 4개 문항, 학사 일정 5개 문항으로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성자[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먼저 연구자가 K도 1개 대학교와 다른 K도 1개 대학교 학과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하여 협조를 구한 후,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한다는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6년 10월 19일에서 11월 2일까지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40부를 회

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미완성되어 부적절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43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 2.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8.0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 과정에서 자료수집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다. 설문지와 함께 첨부한 동의서에는 자의에 따라 연구에 참여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철회 가능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개인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설명과 연구자의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동의서에 서명한 뒤 설문지에 답하게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 2.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두 개 지역 대학을 편의 추출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확대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 3. 연구결과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371명(85.7%)이며, 남자는 62명(14.3%)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학년은 3학년이 215명(49.7%), 4학년이 218명(50.3%)이었다. 연령은 23세 이하가 334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있는 학생이 204명(47.1%), 없는 학생은 229명(52.9%)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보통 이상이 411명(94.9%)로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369명(85.2%), 평균 5점 척도에서 3.26(±.7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3.57(±.84)로 '보통이다' 이상이 397명(91.7%)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3.40(±.81)으로 '보통이다' 이상이 387명(89.3%)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유형에서는 임상간호사 관계가 274명(6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4.0 이상이 66명(15.2%), 3.5이상~4.0미만은 173명(40.0%), 3.0이상~3.5미만은 133명(30.7%), 3.0미만 61명(14.1%)으로 나타났으며, 주 실습지도자는 278명(64.2%)이 일반간호사로부터 실습지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수행 및 관찰과의 비율을 살펴보면 수행 대 관찰이 3:7인 경우가 356명(8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습과 이론과의 연계에 있어서 실습 전에 이론수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177명(40.9%), 실습 전에 일부 이론수업을 하는 경우가 249명(57.3%)으로 대부분 실습 전에 이론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2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 3.58(±.39)점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인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3.73(±.4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성 3.58(±.52)점, 자기조절능력 3.43(±.43)점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하위 구성요인은 자기조절 능력에서는 원인분석력이 3.60(±.54)점, 충동통제력 3.36(±.56)점, 감정조절력 3.32(±.52)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에서는 자아확장력 4.02(±.59)점, 공감능력 3.76(±.52)점, 소통능력 3.41(±.59)점 순으로, 긍정성에서는 감사하기 3.9(±.67)점, 자아낙관성 3.59(±.57)점, 생활만족도 3.20(±.70)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평균 3.65(±.5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의사소통 3.69(±.64)점, 교육/협력관계 3.69(±.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발전 3.66(±.55)점, 간호기술 3.61(±.56)점, 간호과정 3.61(±.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평균 3.40(±.62)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을 살

해보면 외부적 조정요인이 3.56(±.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특성 3.34(±.65)점, 상황특성은 3.29(±.61)점 순으로 나타났다.

### 3.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433

characteristic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mean±standard(M±SD)
sex	male	62	14.3	-
	female	371	85.7	
grade	3 <sup>rd</sup> year	215	49.7	-
	4 <sup>th</sup> year	218	50.3	
age	under 24	334	77.1	23.47±5.74
	over 23	99	22.9	
religion	yes	204	47.1	-
	no	229	52.9	
Health status	Very unhealthy	5	1.2	3.74±.82
	unhealthy	17	3.9	
	average	134	30.9	
	Healthy	203	46.9	
	Very healthy	74	17.1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unsatisfied	5	1.2	3.26± .77
	unsatisfied	59	13.6	
	average	198	45.7	
	Satisfied	157	36.3	
	Very satisfied	14	3.2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Very unsatisfied	6	1.4	3.57± .84
	unsatisfied	30	6.9	
	average	157	36.3	
	Satisfied	188	43.4	
	Very satisfied	52	12.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unsatisfied	11	2.5	3.40± .81
	unsatisfied	35	8.1	
	average	179	41.3	
	Satisfied	185	42.7	
	Very satisfied	23	5.3	
Interpersonal difficulties during clinical practice	Clinical nurse	274	63.3	-
	Patient or guardian	52	12.0	
	peer	30	6.9	
	instructor	30	6.9	
	Other medical personnel	12	2.8	
	other	35	8.1	
Scholastic performance	4.0 or higher	66	15.2	-
	3.5 or higher~under 4.0	173	40.0	
	3.0 or higher~under 3.5	133	30.7	
	Under 3.0	61	14.1	
Practice instructor	Head nurse	81	18.7	-
	Preceptor nurse	68	15.7	
	General nurse	278	64.2	
	other	6	1.4	
Performance and observation ratio in clinical practice	perform: observe=3:7	356	82.2	-
	perform: observe=4:6	48	11.1	
	perform: observe=5:5	11	2.5	
	perform: observe=6:4	8	1.8	
	perform: observe=7:3	10	2.3	
Connection of practice and theory	Theoretical studies before clinical practice	177	40.9	-
	No theoretical studies before clinical practice	8	1.8	
	Partial theoretical studies before clinical practice	249	57.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수행능력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 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 24세 이상(3.70±.42)이 23세 이하(3.54±.3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457, p=.001),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한 경우(3.73±.35)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3.34±.34)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6.883, p=.000). 대학생활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3.81±.42)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20±.88) 보다 회복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14.437, p=.000), 간호학 전공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경우(3.83±.39)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26±.80) 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F=16.076 p=.000).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3.84±.49)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32±.68)보다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11.078, p=.000),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임상간호사와의 관계(3.68±.38)가 실습지도자와의 관계(3.50±.47)보다 회복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4.236, p=.006), 임상실습수행과 관찰 비율에서는 수행 대 관찰이 6:4인 경우(3.88±.44)가 수행

대 관찰이 5:5인 경우(3.42±.38)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761, p=.005).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수행능력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있어 24세 이상(3.82±.50)이 23세 이하(3.60±.4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3.759, p=.000),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4.01±.37)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23±1.0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5.609, p=.000), 간호학 전공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경우(3.89±.52)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33±.97)보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6.938, p=.000), 임상실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경우(3.94±.61)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35±.76)보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6.389, p=.000).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임상간호사인 경우(3.79±.47)가 실습지도자(3.49±.60)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F=5.116, p=.002), 학업성적은 3.5이상~4.0미만인 경우(3.80±.48)가 4.0이상인 경우(3.69±.53)보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3.145, p=.025). 주 실습지도자는 프리셉터간

Table 2. Degree of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N=433

subject		Detailed subject	mean±standard(M±SD)		
Resilience	Self-control ability	Emotion control	3.32± .52	3.43± .43	3.58± .39
		Impulse control	3.36± .56		
		Cause analysis	3.60± .54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mmunication	3.41± .59	3.73± .45	
		empathy	3.76± .52		
		Self-expansion	4.02± .59		
	Self-optimism	Self positivity	3.59± .57	3.58± .52	
		Life satisfaction	3.20± .70		
		appreciation	3.96± .67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Nursing process	3.61± .54	3.65± .50	
		Nursing skills	3.61± .56		
		education/cooperation	3.69± .62		
		Interpersonal relations /communication	3.69± .64		
		advancement	3.66± .55		
Clinical practice stress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3.45± .66	3.29± .61	
		Attitude of patient or guardian	3.41± .77		
		Practice environment	3.18± .69		
		Practice conditions	3.16± .62		
		Role conflict	3.28± .85		
	Pers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factors	3.51±.68	3.34± .65	
		Knowledge and technical factors	3.37± .71		
		Social factors	3.13± .78		
	External modification factors	assignment	3.65± .85	3.56± .75	
		Academic schedule	3.48± .75		

호사 경우(3.80±.48)가 수간호사인 경우(3.69±.53)보다 유 p=.025), 그 외의 요인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의하게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났다(F=3.145,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Table 3. Differences in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b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N=433

characteristic	category	resilience		Clinical practice ability		Clinical practice stress	
		M±SD	t/F(p)	M±SD	t/F(p)	M±SD	t/F(p)
sex	male	3.58±.39	-.006(.996)	3.64±.54	-.901(.368)	3.42±.59	1.412(.159)
	female	3.58±.43		3.71±.55		3.30±.75	
grade	3 <sup>rd</sup> year	3.57±.43	-.765(.445)	3.65±.53	-.195(.846)	3.40±.63	.111(.912)
	4 <sup>th</sup> year	3.60±.36		3.65±.48		3.40±.61	
age	under 24	3.54±.38	-3.457(.001)	3.60±.49	-3.759(.000)	3.42±.60	1.040(.299)
	over 23	3.70±.42		3.82±.50		3.34±.67	
religion	yes	3.59±.39	.321(.749)	3.65±.50	-.059(.953)	3.38±.63	-.738(.461)
	no	3.57±.40		3.65±.72		3.42±.61	
Health status	Very unhealthy	3.34±.34a	6.883(.000)	3.50±.78	1.444(.219)	3.80±.60c	2.448(.046)
	unhealthy	3.43±.63b		3.74±.72		3.71±.59b	
	average	3.47±.37b		3.57±.53		3.45±.64a	
	Healthy	3.62±.38c		3.68±.44		3.37±.59a	
	Very healthy	3.73±.35d		3.70±.54		3.30±.61a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fe	Very unsatisfied	3.20±.88a	14.437(.000)	3.23±1.05a	5.609(.000)	3.35±1.02a	6.341(.000)
	unsatisfied	3.36±.39b		3.46±.47b		3.61±.59c	
	average	3.53±.36c		3.65±.51c		3.44±.62b	
	Satisfied	3.72±.35d		3.71±.46d		3.32±.57a	
	Very satisfied	3.81±.42e		4.01±.37e		2.78±.50a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Very unsatisfied	3.26±.80a	16.076(.000)	3.33±.97a	6.938(.000)	3.49±.97b	4.299(.002)
	unsatisfied	3.40±.43b		3.50±.61b		3.71±.68c	
	average	3.45±.37b		3.54±.50b		3.45±.64b	
	Satisfied	3.66±.33c		3.71±.43c		3.38±.55b	
	Very satisfied	3.83±.39d		3.89±.52d		3.16±.60a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Very unsatisfied	3.32±.68a	11.078(.000)	3.35±.76a	6.389(.000)	3.56±.75c	3.387(.010)
	unsatisfied	3.41±.40b		3.55±.43b		3.68±.51d	
	average	3.49±.36b		3.56±.50b		3.41±.63b	
	Satisfied	3.68±.34c		3.74±.46c		3.36±.59b	
	Very satisfied	3.84±.49d		3.94±.61d		3.13±.68a	
Interpersonal difficulties during clinical practice	Clinical nurse	3.68±.38b	4.236(.006)	3.79±.47c	5.116(.002)	3.35±.61	.668(.572)
	Patient or guardian	3.62±.36b		3.70±.45c		3.43±.66	
	peer	3.51±.38a		3.59±.51b		3.36±.55	
	instructor	3.50±.47a		3.49±.60a		3.46±.61	
Scholastic performance	4.0 or higher	3.62±.45	1.026(.381)	3.69±.53a	3.145(.025)	3.39±.69	.111(.954)
	3.5 or higher~ under 4.0	3.63±.34		3.80±.48b		3.40±.66	
	3.0 or higher~ under 3.5	3.56±.39		3.60±.49a		3.40±.58	
	Under 3.0	3.51±.40		3.70±.42a		3.54±.55	
Practice instructor	Head nurse	3.62±.45	1.026(.381)	3.69±.53a	3.145(.025)	3.39±.69	.111(.954)
	Preceptor nurse	3.63±.34		3.80±.48b		3.40±.66	
	General nurse	3.56±.39		3.60±.49a		3.40±.58	
	other	3.51±.40		3.70±.42a		3.54±.55	
Performance and observation ratio in clinical practice	perform: observe=3:7	3.56±.38b	3.761(.005)	3.63±.49	1.292(.272)	3.42±.62	1.024(.394)
	perform: observe=4:6	3.73±.43c		3.79±.53		3.23±.64	
	perform: observe=5:5	3.42±.38a		3.53±.59		3.35±.37	
	perform: observe=6:4	3.88±.44d		3.76±.64		3.35±.26	
	perform: observe=7:3	3.44±.36a		3.61±.38		3.43±.61	
Connection of practice and theory	Theoretical studies before clinical practice	3.61±.38	1.018(.362)	3.67±.50	.189(.828)	3.36±.60	2.819(.061)
	No theoretical studies before clinical practice	3.46±.50		3.67±.56		3.88±.75	
	Partial theoretical studies before clinical practice	3.56±.40		3.64±.50		3.41±.62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variable	$\beta$	t	p
resilience(self-control ability)	.084	2.184	.030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091	5.369	.000
adjusted R2 : .265, F= 78.592, p<.05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variable	$\beta$	t	p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160	-3.267	.001
Resilience(self-control ability)	-.139	-2.835	.005
adjusted R2 : .053, F=12.972 p<.05			

변수만 선택되도록 하였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하게 선택된 변수인 연령,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임상실습 중 수행과 관찰 비율과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연구 결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 $\beta=.084$ ,  $p=.030$ )과 임상실습 만족도( $\beta=.091$ ,  $p=.000$ )에 따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하게 선택된 변수인 건강상태,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와 회복탄력성 하위 요인 중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연구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총 회복탄력성( $\beta=-.139$ ,  $p=.005$ )과 대학생활 만족도( $\beta=-.160$ ,  $p=.001$ )에 따라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논의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에서 회복탄력성 정도는

평균 3.58( $\pm.39$ )점으로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의 하위 구성요인에서는 대인관계능력이 3.73( $\pm.45$ )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성 3.58( $\pm.52$ ), 자기조절능력 3.43( $\pm.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안생, 윤치근 등[30]의 연구에서는 3.04점으로, 박소연, 권윤희 등[28]의 연구에서 3.37점, 류경, 김종경[20]의 연구에서 3.38점, 문인오, 박숙경 등[31]의 연구에서 3.47점으로 나타난 것과 상이하게 높게 나타나 간호사보다 간호대학생이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달라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간호학생 대상의 회복탄력성 정도에 관한 반복 연구와 간호사와의 회복탄력성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3.65( $\pm.50$ )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의사소통 3.69( $\pm.64$ ), 교육/협력관계 3.69( $\pm.62$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직 발전 3.66( $\pm.55$ ), 간호기술 3.61( $\pm.56$ ), 간호과정 3.61( $\pm.54$ )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이재경[29]의 연구에서 3.30점, 박선정과 박병준[32] 연구에서 3.20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상이하게 높게 나타났다.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재경[29]와 최은희[33]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의사소통이 가장 높았으며, 이재경[29], 신경아와 조복희[34], 박선정과 박병준[32]의 연구에서 간호과정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는 간호현장에서 간호학생에게 간호과정을 적용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34]. 실습현장에 임상현장지도자의 적극

적인 활용과 집담회를 통해 사례중심의 간호과정 적용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한다면 간호과정 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점수는  $3.40(\pm 0.62)$ 점으로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고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재경[29]연구에서  $3.24(\pm 0.51)$ 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3,4학년 2학기때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모두  $3.40(\pm 0.63)$ 점,  $3.40(\pm 0.61)$ 점으로 비슷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학년 만을 대상으로 한 양윤경, 한금선, 배문혜, 양승희[14]연구에서  $3.57(\pm 0.60)$ 점으로 나타나 3학년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처음 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1학기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서는 '과제물', '학사일정'이 포함된 외부적 조정요인이  $3.56(\pm 0.75)$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심리적 요인', '지식, 기술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포함된 개인특성이  $3.34(\pm 0.65)$ 점, '의료인 태도', '환자 보호자의 태도', '실습환경', '실습상황', '역할갈등'이 포함된 상황특성이  $3.29(\pm 0.61)$ 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경[29], 한선희와 유혜순[12]에서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 중 외부적 조정요인 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과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실습지침서 작성과 사례보고서 등과 같은 과제물의 양과 사례보고에 대한 집담회 발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실습목표에 맞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과제물을 부과함으로써 과제물로 인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나갈 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있어 연령이 24세 이상(3.70, 3.82)인 경우가 23세 이하(3.54, 3.6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존의 사회적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한 경우(3.73, 3.70, 3.30)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3.34, 3.50, 3.80)보다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높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35]. 이에 건강상태 유지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증진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매우 만

족하는 경우(3.81, 4.01, 2.78)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20, 3.23, 3.35)보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는 역시 매우 만족하는 경우(3.83, 3.89, 3.16/3.84, 3.94, 3.56)가 매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3.26, 3.33, 3.49/3.32, 3.35, 3.13)보다 같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으나[29, 35, 36, 37]의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간호대학생의 건강상태, 임상실습만족도, 간호학전공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증진하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도 감소시키는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과 학과적응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에서는 임상간호사와의 관계가 실습지도자와의 관계보다 회복탄력성( $F=4.236, p=.006$ )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F=5.116, p=.002$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임상간호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38]에서 임상 수행을 하는 데 대인관계가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밝힌 바 있으므로 임상간호사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실습 수행과 관찰비율에서는 수행 대 관찰이 6:4인 경우(3.88)가 가장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찰 중심의 임상실습 교육보다는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과 교내실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성적은 평균 평점 3.5이상~4.0미만인 경우(3.80)가 4.0이상인 경우(3.69)보다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서보민[39]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론적 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함에 따라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실습지도자가 프리셉터간호사 경우(3.80)가 임상실습 수행능력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임상실습이 프리셉터 간호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총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 $r=.510, p=.000$ )를 보였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정적 상관관계( $r=-.153, p=.001$ )를 보였다. 이는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인 간호과정, 간호기술, 협력, 의사소통, 전문직에 대한 능력을 증진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 $\beta=.084, p=.030$ )과 임상실습 만족도( $\beta=.091, p=.000$ )에 따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 능력( $\beta=-.139, p=.005$ )에 따라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치위생과 학생의 직무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40]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41] 회복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임상간호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회복탄력성은 학습이나 훈련 등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태도나 심리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어,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간호대학생 대상으로 실시된 회복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서 임상실습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로 간호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높이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규명하였고,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최근 임상실습교육에 적절한 실습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실습 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핵심간호술기, 시뮬레이션 등의 반복적인 실습교육을 통한 회복탄력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효율적인 교내 간호실습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경험한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융합 관련성을 파악하여 긍정적인 임상실습결과를 가져오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을 6개월 이상 경험한 433명이며,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19일에서 11월 2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 18.0win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외,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58( $\pm 0.39$ )점, 임상수행능력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5( $\pm 0.50$ )점,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0( $\pm 0.62$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관련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연령( $t=-3.457, p=.001$ )과 건강상태( $F=6.883, p=.000$ ), 대학생활 만족도( $F=14.437, p=.000$ ), 간호학전공 만족도( $F=16.076, p=.000$ ), 임상실습 만족도( $F=11.078, p=.000$ ),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F=4.236, p=.006$ ) 및 실습 수행과 관찰 비율( $F=3.761, p=.005$ )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연령( $t=-3.759, p=.000$ )과 대학생활 만족도( $F=5.609, p=.000$ ), 간호학전공 만족도( $F=6.938, p=.000$ ), 임상실습 만족도( $F=6.389, p=.000$ ), 임상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F=5.116, p=.002$ ), 학업성적( $F=3.145, p=.025$ ) 및 주 실습지도자( $F=3.145, p=.025$ )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건강상태( $F=2.448, p=.046$ ), 대학생활 만족도( $F=6.341, p=.000$ ), 간

호학전공 만족도( $F=4.299, p=.002$ ), 임상실습 만족도( $F=3.387, p=.010$ )요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실습관련 특성 중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 모두에 영향을 끼친 요인은 대학생활 만족도, 간호학 전공 만족도 및 임상실습 만족도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회복탄력성이 임상실습 수행능력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상실습 수행능력은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 $\beta=.084, p=.030$ )과 임상실습 만족도( $\beta=.091, p=.000$ )에 따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회복탄력성 중 자기조절능력( $\beta=-.139, p=.005$ )에 따라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회복탄력성과 임상실습 수행능력, 임상실습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M. H. Waldner, J. K. Olson(2007).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4(1), 1-14,
- [2] P. Benner, M. Sutphen, V. Leonard, L. Day,(2010). *Educating nurses: A call for radical transformation*. Jossey-Base, SanFrancisco, California
- [3] M. D. Bantell(2005), *Clinical evaluation methods used by baccalaureate nursing educato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clinical area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 [4] T. Locken, H. Norberg, (2005), *Reduced anxiety improves learn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rough utilization of mentoring triads*, J Nurs Educ. 48(1), 17-23,
- [5] P. Bradley, K. Postlethwaite,(2003) *Simulation in clinical learning Medical Education*, 37(1), 1-5,
- [6] Korean Nurses Association,(2011) *Experience of clinical new nurse practitioner training*, seoul.
- [7] M. H. Cho, I. S. Kwon,(2007),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13(2), 143-154.
- [8] A. Löfmark, B. Smide, K. Wikblad, (2006), *Competence of newly-graduated nurses: A comparison of the perception so qualified nurses and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3, 721-728,
- [9] S. L. Kim, J. E. Lee,(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1 (1), 98-106.
- [10] S. J. Whang,(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11] N. Y. Yang, S. Y. Moon,(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216-225.
- [12] S. H. Han, H. S. Yu,(2012), *College Women's Self-leadership,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 Disclosure in an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130-139.
- [13] O. S. Lee,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 [14] K. Y. Yun, S. H. Kuem, H. B. Moon, S. H. Yang(2014).,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22(1), 23-33,
- [15] G. S. Jung,(2013).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Ego-resiliency and the Stress on Clinical Practice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Care Management. 10, 165-183,
- [16] J. H. Kim (2011), *Resilience*, Wisdomhouse, seoul
- [17] D. Jackson, A. Firtko, M. Edenborough,(2007), *Personal*

- resilience as a strategy 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0(1), 1-9.
- [18] M. Zander, A. Hutton, L. King,(2010), *Coping and resilience in pediatric oncology nurses*, *Journal of Pediatric Oncology Nursing*, 27(2), 94-108.
- [19] B. N. Kim, H. S. Ou, O. S. Bak,(2011), *A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20(1), 14-23.
- [20] K. Ryu, J. K. Kim,(2016),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 Stress,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 Contents Society*,16(7), 439-450,
- [21] K. Reivich, A. Shatté,(2003) *The resilience factor*, *Broadway Books, New York*
- [22] C. Barrett, F. Myrick,(1998),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ournal Advance Nursing*, 79(2), 364-371.
- [23] U. H. Lee, J. J. Kim, J. S. Yu, H. G. He, G. S. Kim, S. M. Lim,(1990), *Development of clinical practice performance measurement tools for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13, 17-27, .
- [24] M. S. Choi,(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Ph.M. thesis,
- [25] D. L. Beck, R. Srivastva,(1991).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30(3), 127-133,
- [26] S. J. Whang,(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27] H. J. Choi, E. J. Seok,(2013), *Analysis of Child Care Teacher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7, 93-115,
- [28] S. Y. Park, Y. H. Kwon, Y. S. Park,(2015),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in New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5(2), 324-332,
- [29] J. K. Lee,(2015),*The Relationships among Clinical Compet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Skill & Nunchi in Nursing Students*", *College of Nursing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h.M. thesis,
- [30] O. S. Lee, C. G. Yoon, J. M. Lee,(2012),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the Depression of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1), 46-54.
- [31] I. O. Moon, S. K. Park, J. M. Jung,(2013). *Effects of Resilience on Work Engagement and Burnout of Clinical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19(4), 525-535.
- [32] S. J. Park, B. J. Park,(2013),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to Clinical Competence among One Colleg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21(4), 313-322.
- [33] E. H. Choi,(2009),*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15(1), 15-21,
- [34] K. A. Shin, B. H. Cho,(2012), *Professional Self-Concep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1), 46-56,
- [35] O. M. Ji, J. H. Lee,(2014),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2), 1125-1140.
- [36] H. O. Kang,(2010), *A Study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elf-Concept of Professional Nursing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Ph.M. thesis,
- [37] M. S. Park, M. H. Lee, J. A. Gu(2011), *Clinical Competency,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29(2),111-123.
- [38] N. Memarian, I. Concina, A. Braga, S. M. Rozati, A. Vomiero, G. (2011), *Sberveglieri, "Hierarchically Assembled ZnO Nanocrystallites for High Efficiency Dye Sensitized Solar Cells*, *Angewandte Chemie*, 123(51), 12529-12533,
- [39] B. M. Seo,(2014.),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Ph.D. thesis.
- [40] J. Y. Kim, (2018),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Occupational Self-Efficac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269-276.
- [41] M. J. Kim, Y. S. Park, Y. H. Kwon,(2015), *The Effects of Clinical Nurses' Resilie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on Burnout*,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2), 1284-1291.

신 미 자(Mi-Ja Shin)

[정회원]



- 1982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1995년 2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82년 9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혈액투석, 간호행정, 노인 이미지, 임상실습
- E-Mail : mjshin@ansan.ac.kr

전 열 어(Yeol-Eo Chun)

[정회원]



- 200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행정, IT 공학, 임상실습
- E-Mail : 20130013@gimcheon.ac.kr